

蘇軾의 書藝詩를 통해 본 書藝觀*

禹 在 鎬**

<目次>

I. 序論	1. 唐 以前 서예에 관하여
II. 연구대상 및 범주	2. 唐代 서예에 관하여
III. 蘇軾의 書藝詩를 통해본 書藝觀	3. 宋代 서예에 관하여
	IV. 結論

I. 序論

蘇軾(1036~1101)은 일찍이 <자유의 논서시에 차운하여 화답하다(次韻和子由論書)>에서 “나는 비록 글씨를 잘 쓰지는 못해도, 글씨를 아는 데는 나만한 이가 없다네.(吾雖不善書, 曉書莫如我.)”라고 하여,¹⁾ 자신의 서예 창작에 대해서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중국 역대 서예에 대한 서예 관이나 서론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비록 소식의 서예에 대해서는 역대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지만,²⁾ 소식의 친필 行書인

* 이 연구는 2015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嶺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科 教授

- 1) 《蘇軾詩集》(全8冊, 孔凡禮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叢書, 北京中華書局, 1992. 4, 3版) 卷5, 209쪽. 시 제목이 <次韻和子由論書>로 되어 있으나, 《蘇東坡全集》(楊家駱編, 上下二冊, 臺灣世界書局, 民國53年) 등에서는 <和子由論書> 또는 <次子由論書>로 되어 있기도 하다.
- 2) 소식 서예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병존한다. 소식의 서예는 강렬한 개인적 풍격을 지니고 있어 평론가들의 포퓰이 한결같지 않았지만, 대체로 소식 서예의 강한 개성을 긍정하고 찬양하는 평가가 많은 편이다. 元代의 趙秉文은 <소

<寒食帖>은 중국의 역대 서예 범첩 가운데서도 최고의 명필 중 하나로 공인받을 정도로 뛰어난 대서예가였다.³⁾ 蘇轍 역시 “우리 형은 원래부터 글씨에 뛰어나, 배워서 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吾兄自善書, 所取無不可)”고 소식이 글씨에 뛰어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다.⁴⁾

시와 서예에 모두 뛰어났던 소식은 시에서 자신이 지닌 서예관을 상당히 많이 남기기도 하였다. 문인인 동시에 대서예가로서의 명성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시에는 서예에 대한 견해가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 본고에서는 서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러한 시를 書藝詩⁵⁾로 분

동파의 미자석연시 진적에 제함(題東坡眉子石硯詩真蹟)>에서 소식의 인품이 고상하고 수양이 심오하며, 서예는 그 사람의 흥중에 담긴 충의의 기운이고 학문과 문장의 기상이 밖으로 현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외형만을 모방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소식의 서예를 극도로 추켜세우고 있다. 그러나 혹자는 소식의 글씨를 “側筆로 세를 취하였다”거나 “획이 굵기만 하고 서투르다”거나, 풍만하고 살이 많으며 강하지 않다고 비난하여 ‘먹돼지(墨豬)’라 폄하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王著이다. 黃庭堅에게서부터 시작하는 소식 서예에 대한 후대의 평가도 별도의 연구로 다루어봄직하다.

- 3) 蘇軾은 문학에 있어 詩, 詞, 賦, 散文 등 모든 장르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역대로 가장 뛰어난 문인 중의 하나이자,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로 가장 특이하고 운치 있는 서체를 구현한 서예가로도 유명하여 서예사에서는 宋四大家로 꼽히기도 한다. 특히 그의 대표작 <黃州寒食詩帖>은 가늘면서도 힘 있고 자유분방하며, 운필이 변화무쌍하여 특징적인 서예의 전범으로 알려져 있다.
- 4) 《蘇轍集》(全4冊, 陳宏天·高秀芳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叢書, 北京中華書局, 1990.8, 1版) <欒城集> 卷1, 19쪽에 수록된 蘇轍의 이 시는 <자침이 기양 십 오비를 부쳐 보여주다(子瞻寄示岐陽十五碑)>이다.
- 5) 書藝詩란 서예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를 말한다.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발표된 기존의 논문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시들을 주로 論書詩라 칭하는 경향이 있고, 한국에서는 論書詩라는 용어 외에도 書藝詩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붓글씨에 대해, 중국에서는 書法이란 용어를, 한국에서는 주로 書藝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예시라는 용어가 한국 독자들에게 오해를 줄 여지가 별로 없을 듯하며, 본고가 한국에서 한국어로 발표되기 때문에 書藝詩라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무방할 듯하다. 서예시란 서예 작품을 전문적으로 폄평하거나 서예 이론을 정리한 시는 물론이고, 작가 자신이 글씨를 쓰면서 느끼는 감흥을 읊은 시, 서예사를 읊은 시, 기타 글씨와 서예가에 대한 일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시, 그리고 문방사우를 비롯한 서예 도구를 읊은 시 등 서예에 관한 모든 시를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류해보고자 한다. 당연히 소식의 서예시에는 소식이 생각하고 있는 서예관이나 문필론 등이 적절히 잘 용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식의 시중에서 서예시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시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 시들을 중심으로 소식이 지니고 있었던 중국 역대 서예가와 서예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와 관점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범주

書藝詩가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唐代였으나,⁶⁾ 서예시가 가장 왕성하게 지어진 시기는 오히려 宋代였다고 할 수 있다. 宋代의 서예시를 개관해볼 때, 梅堯臣 이후 北宋 四大書藝家라 불리는 蘇軾, 黃庭堅, 米芾, 蔡襄 등이 서예시를 다수 창작하였다.⁷⁾ 蘇軾과 黃庭堅이 남긴 서예시로 대략 58수와 50수를 선별할 수 있었으므로,⁸⁾ 송대 서예시는 梅堯臣에게서부터 시작되어 蘇軾과 黃庭堅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소식의 서예시들을 추출하기 위해, 먼저 詩題에 서예 관련 어휘가 사용된 시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시의 원문에 서예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시들을 선별해보았다. 이를 통해 소식의 서예시로 총

-
- 6) 禹在鎬, <唐代 書藝詩 試探>(《中語中文學》 第43輯, 韓國中語中文學會, 2008. 12), 147-148쪽. 先秦 漢 魏晉代の 문학작품으로 서예를 다루고 있는 경우는 王融과 江總 등이 篆書에 관해 논한 각종 散文과, 문방사우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蔡邕의 <筆賦>(《全漢賦》, 北京大學出版社, 579쪽) 등을 들 수 있으나, 《先秦漢魏晉南北朝詩》(上中下 3冊, 遂欽立 輯校, 中華書局, 1995)를 통틀어 볼 때, 唐 이전의 시가에서는 문방사우를 읊은 시 7수만 찾을 수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唐 이전의 시가에서 진정한 書藝詩를 찾기는 어려웠다.
- 7) 禹在鎬, <梅堯臣 書藝詩의 特徵>(《中國語文學》 第55輯, 嶺南中國語文學會, 2010.6), 178-180쪽.
- 8) 禹在鎬, <黃庭堅의 書藝詩 研究>(《中國語文學》 第69輯, 嶺南中國語文學會, 2015.8), 60쪽 각주 3) 참조.

47題 58首를 선별할 수 있었는데,⁹⁾ 이는 書藝家와 書體와 書論을 주제로 다룬 시 외에, 紙筆硯墨 등 文房四友를 다루고 있는 시를 모두 포함한 양이다. 현전하는 2,900여 수의 소식 시 중에서¹⁰⁾ 서예시로 선별할 수 있는 시는 대략 47題 58首 정도였으니,¹¹⁾ 단순히 양적으로 계량한다면 58수가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으나, 《全唐詩》에 실린 48,000여수의 시중에서 서

- 9) 趙龍濤, <蘇軾論書詩簡論>(《書畫藝術學刊》 第9期, 國立臺灣藝術大學, 2010)에서는 소식 서예시를 전반적으로 분류 정리하고 있으며, 蔡顯良의 《宋代論書詩研究》(南京藝術學院 博士學位論文, 2007.5), 凌麗萍의 《宋代論書詩研究》(浙江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5), 蔡顯良의 <宋四家論書詩概說>(《中國書法》 第8期, 2004.8) 등의 선행연구에서도 소식의 서예시를 분류 열거하고 있다. 소식 서예시 중에서 순수하게 서예시라 분류하기 어려운 文房四友 관련한 26수의 시들을 제외하면 21題 32首 정도 되지만, 소식 서예시로 분류하고 있는 시의 편수는 연구자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다. 아울러 소식 論書詩 관련 선행연구를 CNKI에서 검색해보면, 검색창에 ‘蘇軾書法’을 입력했을 경우, 본문에 이 용어가 사용된 자료 모두 검색했을 시는 무려 34,646건이, 題目으로 범위를 좁혔을 때는 128건이 검색되었고, ‘蘇軾論書詩’라는 용어로 본문까지 모두 포함했을 시 264건이, 제목만 검색했을 시에는 4건이 검색되었다.(CNKI 2015년 10월 8일 검색, http://epub.cnki.net/kns/brief/default_result.aspx) 이들 선행논문에서는 소식의 서법과 서론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는데, 이들 선행연구를 모두 참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고에서는 소식 서예시에 담겨 있는 역대 서예가와 서예 작품에 대한 소식의 서예관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보고자 한다. 소식 서예시 목록은 분량이 많아 생략하였다.
- 10) 현전하는 蘇軾의 詩數에 대해 《蘇詩研究史稿》(王友勝, 修訂版, 中華書局, 2010.7, 北京)의 王水照 序文에서는 2,700여수라 하였고, 《완역蘇軾詩集 I》(류종목 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11)에서는 3,000수에 가깝다고 하여, 두 연구에서의 시수 차이가 상당하였다. 아마 2000년에 작성된 王水照 序文에서는 후에 발굴된 補遺編 등은 산정하지 못한 듯하다.
- 11) 본고에서 저본으로 한 소식 시집은 北京中華書局에서 中國古典文學基本叢書로 간행한 《蘇軾詩集》(全8冊, 孔凡禮 點校, 1992.4, 3版)이다. 일차저본인 이 《蘇軾詩集》을 기본으로 하여 서예시를 선별하였고, 이들 선별된 시를 다시 《全宋詩》(全72卷, 北京大學出版社, 1998)와 대조하였다. 아울러 《書法詠論》(楊克炎 選注, 遼寧美術出版社, 1993)과 《蘇軾與書畫文獻集》(李福順 編著, 榮寶齋出版社, 2008, 北京) 등에 수록된 소식의 서예시도 참고하면서 소식 서예시를 선별 해석하였다. 당연히 시 속에 書나 字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이 시를 서예시로 분류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서예시인지 아닌지 경계가 모호한 작품도 있지만, 대체로 詩題와 內容을 함께 고려하면서 서예 관련 내용이 담겨 있으면 이를 서예시로 분류하였다.

예시로 선별할 수 있는 시들이 총 91題 92首 정도라는 것과 비교해보면,¹²⁾ 소식의 서예시 또한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선별된 소식의 서예시 중 詩題에 論書라는 용어를 사용한 <자유의 논서시에 차운하여 화답하다(次韻和子由論書)>를 가장 대표적인 시로 들 수 있다.

吾雖不善書,	나는 비록 글씨를 잘 쓰지는 못해도,
曉書莫如我.	글씨를 아는 데는 나만한 이가 없다네.
苟能通其意,	진실로 서예의 본의에 통달할 수 있다면,
常謂不學可.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항상 말하였네.
貌妍容有鬢,	용모가 예쁘면 얼굴을 찌푸려도 용납되고,
璧美何妨卮.	벽옥이 아름다우면 타원형인들 무엇 문제이라.
端莊雜流麗,	단정 장중함 속에 유려함과 화려함이 섞여 있고,
剛健含婀娜.	강건 장대함 속에 부드러운 아름다움 담겨야 하네.
好之每自識,	이러한 풍격 좋아하나 매번 스스로 꾸짖는데,
不謂子亦頗.	그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할 줄은 몰랐다네.
書成輒棄去,	글씨 다 쓰고 난 뒤에는 문득 내다버리는데,
繆被旁人裹.	잘못 쓴 것도 옆 사람들은 싸가지고 간다네.
體勢本闊略,	결구와 기세는 본래 얽매임 없이 분방하더라도,
結束入細靡.	기세를 거두어들임은 섬세하게 해야 한다네.
子詩亦見推,	그대는 시에서 나를 칭찬하는 말도 하였는데,
語重未敢荷.	말은 정중하지만 감히 받아들일 수 없다네.
邇來又學射,	근래에는 또 활 쏘는 것을 배워 보았는데,
力薄愁官箚.	힘이 부족해 열두 발 관용 화살도 힘들었네.
多好竟無成,	좋아하는 것이 많으면 결국 이루는 게 없으니,
不精安用夥.	정미하지 않으면 많은 기예도 어디에 쓰겠는가.
何當盡屏去,	언제라야 모든 일 다 내던져 버릴 수 있어,
萬事付懶惰.	만사 제쳐두고 게으름 피울 수 있으려는지.
吾聞古書法,	내가 듣건대, 옛날의 서법 이론에서는,

12) 禹在鎬, <唐代 書藝詩 試探>(《中語中文學》 43輯, 韓國中語中文學會, 2008. 12.) pp.148-151에서는 《全唐詩》에 실린 서예시를 총 67제 68수로 선별하였으나, 논문을 탈고한 후 《全唐詩》에서 서예 및 문방사우를 읊은 唐詩 24수를 더 찾아내어, 총 91題 92首가 되었다.

守駿莫如跛.	신속하게 달리는 것이 좀 느린 것만 못하다네.
世俗筆苦驕,	세상에서 서예의 병폐는 너무 과시하려하여,
衆中強崑臑.	무리 속에서 억지로라도 최고가 되려 함이네.
鍾張忽已遠,	중요와 장지는 이미 사람들에게 멀어졌으니,
此語與時左.	나의 이 말은 시의와는 서로 상반되겠지. ¹³⁾

소식이 동생 蘇轍에게 기양십오비의 탁본을 보내주자 소철은 <자침이 기양 십오비를 부쳐 보여주다(子瞻寄示岐陽十五碑)>라는 시를 지었고, 소식은 이에 소철의 시에 차운하여 위의 시를 지었다. 이 시는 서예에 있어서 독창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는 소식의 서예관을 비교적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식은 서예란 서예가의 자아 표현이라고 인식하였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죽을 힘을 다해 남을 모방하는 것은 서예를 깊이 이해하여 자아를 충분히 표현하는 것만 못하며, 일가의 풍격을 지닌 서예가는 홀로 자신만의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설령 西施가 심장병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바탕이 훌륭한 美玉으로 타원형 구슬을 만든다 하더라도 오히려 여전히 아름답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모방만 한다면 추하게 된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그는 당시에 유행하여 기풍이 되었던 함축이 부족하고,新意가 없고, 형식에 얽매어 긴장한 형태, 거만하고 천박한 서예 풍조를 비판하였다. 황정건 역시 일찍이 소식의 서예에 대해 “동파의 글씨는 학문과 문장의 기운이 짙고 무성하여 필묵 사이에서 펼쳐져 나오는 것이어서, 이는 다른 사람들이 마침내 미칠 수 없는 까닭이다.”라고 하거나,¹⁴⁾ “동파는 마음속으로 통달했으니, 이는 필묵의 바깥에서 터득한 것이다.”라고 하여,¹⁵⁾ 소식의 서예는 다방면의 성취와 지적 함양의 종합적 반영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서예에 있어서 자기 마음속

13) 《蘇軾詩集》卷5, <次韻和子由論書>, 209쪽.

14) 屠友祥 校, 《山谷題跋》(上海遠東出版社, 2011), 129쪽 <跋東坡書遠景樓賦後>, “東坡書, 學問文章之氣, 鬱鬱芊芊, 發於筆墨之間, 此所以他人終莫能及爾.”

15) 王十朋撰, 《東坡詩集註》, 卷二十七, <和子由論書> 註釋, “東坡心通, 得於翰墨之外.” :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上海古籍出版社, 2007, 3.0版 참조.

으로 통달하는 것을 중시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소식의 이러한 서예관은 그 당시 매우 독창적이어서, 소식 자신이 “글씨를 이는데 나만한 이가 없다.” 라고 한 것은 과장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소식의 서예시는 위의 시처럼 한 편 전체를 통틀어 자신의 서예관을 피력한 경우는 드물고, 전체 시 중의 일부에서 서예에 관한 견해를 표현해낸 경우가 많다.¹⁶⁾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서예시들을 대상으로 소식이 역대 서예와 서예가에 대해 지녔던 서예관을 살펴보도록 한다.

Ⅲ. 蘇軾의 書藝詩를 통해 본 書藝觀

소식의 서예관이나 서론에 대해 다룬 연구 논문은 비교적 많이 있으나, 소식의 서예시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선행 연구는 몇 편 되지 않는다.¹⁷⁾ 소식은 자신의 서예시에서 자신이 생존하였던 當代인 송대의 서예가와 서예 작품을 비교적 많이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대 이전인 秦漢 魏晉 및 唐代 의 서예가와 서예 작품도 상당히 많이 거론하였으며, 이들 전대 서예가와 서예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중간 중간에 자신의 서예관을

16) 아울러 <龍尾硯歌>(《蘇軾詩集》 卷23, 1235쪽) 등과 같이 紙筆硯墨 등 文房 四友에 관해 읊은 26수의 시들은 순수하게 서예시라고 분류하기도 어려워 본고의 논지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17) 소식의 서예시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으로는 趙龍濤의 <蘇軾論書詩簡論>(《書畫藝術學刊》 第9期, 國立臺灣藝術大學, 2010.12), 孫民의 <蘇軾詩中的書道觀—解讀蘇軾三首論書詩>(《樂山師範學院學報》 第19卷 第6期, 2004.6), 方愛龍의 <杜甫李潮八分小篆歌論兼與蘇軾詩比較>(《浙江廣播電視高等專科學校學報》 第5期, 1995), 그리고 周本淳의 <杜甫與蘇軾論書詩之比較>(《淮陰師專學報》 哲學社會科學版, 第2期, 1988) 등이 있다. 趙龍濤의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논문은 소식의 서예시 전부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서너 수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중 趙龍濤의 논문에서는 소식 서예시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소식의 서예시를 크게 審美趣向, 品評書跡書家, 論書法學習和創作, 其他 등의 네 범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다 단순명료하게 소식 서예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명하였다. 소식이 거론하고 있는 역대 서예가에 대한 언급이 唐 이전과 唐代, 그리고 宋代 등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뉘어져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이상의 세 절로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1. 唐以前 서예에 관하여

소식은 역대 서예가 중에서 당대 이전의 서예가와 서예에 대해 비교적 자주 언급하였다. 우선 그의 시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된 당 이전의 서예와 서예가로는 周代의 石鼓文(<鳳翔八觀> 其一 石鼓歌), 秦나라 李斯의 嶧山石刻(<孫莘老求墨妙亭詩>), 東漢의 鍾繇와 張芝(<次韻和子由論書>와 <石蒼舒醉墨堂>), 같은 동한의 羅暉와 趙襲¹⁸⁾(<石蒼舒醉墨堂>), 魏晉代의 王羲之 王獻之 二王과 蘭亭集序(<孫莘老求墨妙亭詩>), 征西將軍 庾翼(<答孔周翰求書與詩>와 <次韻答舒教授觀余所藏墨>), 南朝 宋의 羊欣(<觀子玉郎中草聖>) 등이 있다.

당 이전의 先秦과 漢魏晉代의 여러 서예가와 서예 작품 중에서 소식에게 가장 인정을 받았던 서예가는 단연코 王羲之였고, 최상의 범접으로 받아들여졌던 작품은 <蘭亭集序>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서예가 왕희지에 대한 흠모는 왕희지의 서첩을 보고 난 뒤에 지은 <왕희지 서첩에 제하다(題王逸少帖)>라는 시에 그대로 드러난다.

顛張醉素兩禿翁,	미치광이 장욱과 술 취한 회소는 둘 다 대머리인데,
追逐世好稱書工.	세상 사람들 기호를 좇아 글씨장이란 명칭이 있었지.
何曾夢見王與鍾,	어찌 일찍이 왕희지와 鍾繇를 꿈에서 보았다고,
妄自粉飾欺盲聾.	망령되어 절로 분식하며 소양 없는 이들을 속이는가?
有如市倡抹青紅,	검붉은 분을 저속하게 쳐 바른 시정의 창기와 같이,
妖歌嫵舞眩兒童.	요사스런 노래와 외설스런 춤으로 아동을 현혹하네.

18) 羅暉와 趙襲은 張芝와 같은 동한의 서예가이다. 《晉書》 卷36, 列傳 第6 <衛恒傳>(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上海古籍出版社, 2007, 3.0版) 참조.

謝家夫人淡豊容,	사씨 부인 謝道韞은 태연하고 아름다운 용자에,
蕭然自有林下風.	소연하니 절로 한아하고 초탈한 기색을 지녔다네.
天門蕩蕩驚跳龍,	천문은 넓고도 넓어서 놀란 용이 뛰어오르고,
出林飛鳥一掃空.	숲에서 날아 나온 새들이 한 번에 비어버린 듯하네.
爲君草書續其終,	그대 위해 초서로 그 마지막을 이을 것이니,
待我他日不忽忽.	나를 기다리면 후일에는 바쁘지 않을 것이네. ¹⁹⁾

소식의 서예에 대한 일관된 주장은 한아하고 초탈하며 古意가 풍부한 漢代와 晉代의 고상한 운치를 숭상하고, 너무 자유분방하면서 함축이 부족한 張旭과 懷素의 草書를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에 담겨 있는 소식의 비평은 칭찬과 비난이 분명하고 결구가 긴밀한데, 이 시에서는 이러한 소식의 서예관이 비교적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장욱과 회소의 광초는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빙빙 감돌고, 거칠고 호방한 곳으로 잘못 빠지면 남김없이 다 쏟아져 나온다고 알려져 있다. 비록 장욱과 회소의 서예는 그 나름대로 특징적인 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식이 이들의 초서를 “검붉은 분을 저속하게 쳐 바른 시정의 창기와 같이, 요사스런 노래와 외설스런 춤으로 아동을 현혹한다.”라고 극단적으로 평하여 이들의 초서를 전적으로 부정한다면, 평자에 따라서는 소식이 지나친 편견에 빠졌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식의 비평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러한 비유는 왕희지 서첩의 뛰어남에 대비해볼 때, 장욱과 회소의 초서가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왕희지의 서첩인 <난정집서>의 빼어남에 대해서는 “견사에 쓰여 진 난정집서 원본은 소릉에 묻혔는데, 세간에 전해진 모시품조차 용이 날아오르는 듯한 기세라네.(蘭亭繭紙入昭陵, 世間遺跡猶龍騰.)”(<손신로가 목묘정을 노래한 시를 구하다(孫莘老求墨妙亭詩)>)라고 하여 진품이 아닌 모시품조차 龍蛇飛騰하는 기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난정집서> 이외의

19) 《蘇軾詩集》 卷25, <題王逸少帖>, 1342쪽.

다른 왕희지 서첩의 우수함에 대해서도 <미불이 지은 이왕의 글씨 발미시에 차운하다. 두 수(次韻米芾二王書跋尾二首)> 중 첫째 수에서 선망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三館曝書防蠹毀,	삼관에서 좀 먹는 것 막으려고 책을 햇볕에 널다가,
得見來禽與青李.	왕희지의 진적인 <청리래금첩>을 얻어 보게 되었네.
秋蛇春蚓久相雜,	가을 뱀과 봄철 지렁이가 오래부터 서로 뒤섞여 있으니,
野鷺家雞定誰美.	들오리와 집닭 중에서 누가 더 아름답다 하리오.
玉函金籀天上來,	옥으로 만든 서질과 금 열쇠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紫衣敕使親臨啟.	자주색 옷을 입은 사자가 친히 와서 열어주네.
紛綸過眼未易識,	어지럽게 뒤섞여 얼핏 보아서는 쉽게 알 수 없고,
磊落挂壁空雲委.	잡다하게 많이 벽에 걸려 구름처럼 쌓여 있네.
歸來妙意獨追求,	돌아와 정미한 의취를 홀로 추구해 보나니,
坐想蓬山二十秋.	앉아서 봉래산에서의 이십 년을 생각해보네.
怪君何處得此本,	어디에서 이 법첩을 구했는지 그대를 탓하노니,
上有桓元寒具油.	위에는 환원이 싫어한 파배기기름이 묻어 있네.
巧偷豪奪古來有,	수단 가리지 않고 서화를 취함은 예로부터 있었으니,
一笑誰似癡虎頭.	누가 고개지와 비슷한 지는 일소에 부친다네.
君不見長安永寧里,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장안 영녕리의,
王家破垣誰復修.	왕씨 집 무너진 담장을 누가 다시 수리하리오. ²⁰⁾

三館은 당송 때의 弘文館, 集賢殿, 史館을 말하며 주로 책을 소장하고 교정하고 역사를 편수하는 등의 일을 책임진 관서였다. 이들 관서에서는 습기와 곰팡이 좀벌레로 인해 책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월 7일 책을 햇볕에 쬐어 널었으니 이를 曝書라 하였다. 이 시에서 말하는 “來禽與青李”는 바로 왕희지의 진적 <青李來禽帖>을 말하는데, 책을 말리기 위해 널려진 자료에 이 진적이 포함되었던 듯하다. “秋蛇春蚓”은 《晉書·王羲之傳》에 나오는 말로 나중에는 대부분 초서를 잘 쓰지 못하는 자를 비유하는 말이 되었고,²¹⁾ “野鷺家雞”란 王僧虔의 <論書>에서 유래한 말로

20) 《蘇軾詩集》 卷29, <次韻米芾二王書跋尾二首> 其一, 1536쪽.

서로 다른 유과와 풍격의 서예 작품을 말한다.²²⁾

소식과 미불은 서로 같은 기호를 지닌 친구로, 매년 유명한 필적을 얻으면 서로를 불러 감상하며 질차탁마하면서 고인 필적의 오묘함을 깊이 추구하였다고 한다. 이 시에서는 특히 왕희지의 진적 <靑李來禽帖>을 보게 되었음을 언급하였는데, 왕희지 왕헌지 二王의 이름난 필적을 보면서 소식과 미불의 안목이 더욱 넓혀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왕 서첩에 대한 추앙과 경도는 소식의 또 다른 시인 <유경문이 소장한 왕헌지 서첩에 쓰는 절구(書劉景文所藏王子敬帖絕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²³⁾ 이러한 시들을 통해, 한아하고 초탈하며 古意가 풍부한 漢代와 晉代의 고상한

21) 《晉書》 卷80, 列傳 第50 <王羲之傳> “소자운이 근세에 장강 이남 지역에서 이름을 날렸으나 겨우 글씨를 모양낼 수 있었을 뿐 대장부의 기운이 없었다. 행마다 봄철의 지렁이가 얽혀 있는 것 같고, 글자마다 가을 뱀이 엉겨 있는 것 같다.(子雲近世擅名江表, 然僅得成書, 無丈夫之氣. 行行若縈春蚓, 字字如縮秋蛇.)”고 한 말에서 나왔다(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上海古籍出版社, 2007, 3.0版 참조). 이 말은 <唐太宗書王羲之傳後>(陳思, 《書苑菁華》(四庫藝術叢書, 上海古籍出版社, 1991.8) 卷20, 197쪽)에도 실려 있다.

22) 宋 朱長文的 《墨池編》 卷2에 수록된 王僧虔의 <論書>에서 “정서장군 유익의 글씨는 어려서는 우군장군 왕희지와 이름을 같이 하였으나, 왕희지가 후에 더욱 유명해졌지만 유익은 오히려 성내지 않았다. 형주에 있을 때 아래 사람에게 글씨를 써주면서 말하였다. ‘어린 아이들은 [집안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서예인] 집담을 천시하고 [남의 집에서 전해지는 서예인] 들오리를 더 좋아하여 모두들 왕희지의 글씨를 배우지만, 모름지기 내가 돌아온다면 그와 비견될 것이다’(庾征西翼書, 少時與右軍齊名, 右軍後進, 庾猶不忿. 在荊州與都下書云, 小兒輩乃賤家雞, 愛野鶩, 皆學逸少書, 須吾還, 當比之)”라고 한 말에 나오는데, 집안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서예를 집담에 비유하고 남의 집에서 전승되는 서예를 들오리에 비유하였다(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上海古籍出版社, 2007, 3.0版 참조). 이 시에는 ‘桓玄’, ‘寒具油’, ‘癡虎頭’, ‘顧愷之’, ‘丞相王涯’ 등 서화와 관련한 典故가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다.

23) 이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집담과 들오리가 동시에 제사상에 올랐고, 가을 뱀과 봄철 지렁이 모두 화장품 상자에 들어 있네. 그대 집안에 소장한 글씨 두 줄짜리 열두 자가, 업후 李泌가 소장한 책 삼만 권의 기운을 능가하네.(家雞野鶩同登俎, 春蚓秋蛇總入奩. 君家兩行十二字, 氣壓鄴侯三萬籤.)” 몇 자 되지 않는 왕헌지 서첩의 기운이 강함을 묘사하고 있는데, <次韻米芾二王書跋尾二首> 其一에서 사용한 동일한 시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운치를 숭상했던 소식은 진한대와 위진대를 통틀어 서예가로는 왕희지를, 서예작품으로는 <난정집서>를 최고의 전범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唐代 서예에 관하여

소식의 서예시에는 당대의 서예가도 상당히 많이 출현한다. 당대의 서예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이는 顏眞卿으로, 안진경에 대한 소식의 인식은 “옛 법을 바꾸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내었다(顏公變法出新意)”는 것이다. 안진경 외에도 소식이 거론한 당대 서예가로는 徐嶠之와 徐浩 부자(<孫莘老求墨妙亭詩>), 李陽氷(<孫莘老求墨妙亭詩>), 賀知章(<孫莘老求墨妙亭詩>), 劉禹錫과 柳宗元の 일화에서 나온 元和脚 서체(<酬柳氏二外甥求筆迹二首> 其一), 褚遂良과 柳公權(<酬柳氏二外甥求筆迹二首> 其二), 張旭과 懷素(<題王逸少帖>과 <題懷素草帖>), 그리고 五代 때의 楊凝式(<金門寺中見李西臺與二錢唱和四絕句戲用其韻跋之> 其三) 등이 있다. 소식이 거론하고 있는 당대 서예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은 <손신로가 목묘정을 노래한 시를 구하다(孫莘老求墨妙亭詩)>에 비교적 잘 담겨 있다.

蘭亭繭紙入昭陵,	건사에 쓰여 진 난정집서 원본은 소릉에 묻혔는데,
世間遺跡猶龍騰.	세간의 모사품조차 용이 날아오르는 듯한 기세라네.
顏公變法出新意,	안진경은 옛 법을 바꾸어 새로운 세계 만들어 내었으니,
細筋入骨如秋鷹.	가는 힘줄 뼈대 있음이 가을 수리와 같았네.
徐家父子亦秀絕,	서교지와 서호 부자 또한 글씨가 빼어나고 뛰어났으니,
字外出力中藏稜.	밖으로 힘이 넘치고 안으로는 날카로움 감추고 있네.
嶧山傳刻典型在,	역산 석각은 지금도 여전히 글씨의 전형으로 남아,
千載筆法留陽氷.	천 년토록 이어진 필법은 이양빙에게 전해졌네.
杜陵評書貴瘦硬,	두보는 글씨를 평함에 여위고 굳셈 귀히 여겼으나,
此論未公吾不憑.	이 평론은 공정하지 않아 나는 근거로 삼지 않는다네.
短長肥瘠各有態,	짧고 길고 살지고 여윈 것이 각각 자태가 있는데,
玉環飛燕誰敢憎.	양귀비와 조비연 중에 누구를 감히 싫어하리오. ²⁴⁾
.....

시대가 다르면 서예를 평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시인의 기호도 각각 달라 그가 숭상하는 것도 반드시 서예가나 시인, 그리고 비평가마다 다르다. 杜甫의 <이조의 팔분소전 글씨 노래(李潮八分小篆歌)>에서 “글씨는 여위고 굳셈 귀히 여겨야 바야흐로 신묘함과 통한다.”²⁵⁾라고 한 것에서부터 소식이 “짧고 길고 살지고 여윈 것이 각각 자태가 있는데, 양귀비와 조비연 중에 누구를 감히 싫어하리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마다 글씨를 평하는 기준과 표준에 변화가 있고, 또한 각 서예가마다 좋아하는 요소가 각각 다른 것이다. 이 시에서 소식은 의식적으로 두보와는 다른 견해를 내세우려 하거나 혹은 그 편견을 전적으로 공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소식 자신이 지닌 서예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표명한 것이다.

이 시는 전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논평이고 후반부는 서술이다. 위에서 인용한 부분은 전반부 10구로 書風이 다른 역대의 서예가, 그 중 특히 당대의 서예가를 열거하였고, 각 書派마다 각자의 장점이 있음을 지적해내었다. 뒤에 생략한 부분은 후반부 10구로 고대의 글씨 진적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墨妙亭 주인 孫莘老의 뛰어난 일을 쓰고 있다.²⁶⁾

24) 《蘇軾詩集》 卷8, <孫莘老求墨妙亭詩>, 371쪽.

25) 仇兆鰲, 《杜詩詳註》(全3冊,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臺灣, 民國73年), 卷18, 1550쪽, <李潮八分小篆歌> “書貴瘦硬方通神.”

26) 이 시의 후반부는 다음과 같다. “오홍 태수 손신로는 참으로 옛 것을 좋아하여, 부서지고 훼손된 비갈을 구매하려 돈을 뿌리네. 귀부가 집에 들어와 있고 이무기는 벽에 새겨져, 텅 빈 서재에 고요한 낮에도 텅텅 탁본소리 들리네. 진귀한 비각이 나왔다하면 오월까지 달려가니, 좋은 일과 전하는 이야기 친구들에게 많이도 하네. 편지를 보내 시를 구하며 친필로 써 달라기에, 서수필 잡고 최고급 계등지에 글씨를 썼네. 후세 사람이 지금을 봄이 지금 옛 사람을 봄과 같을 터, 백세를 대충 훑어보니 바람 앞의 등불과 같구나. 옛날 유우석이 하지장의 초서를 보며 탄복하였듯, 같은 시대였다면 반드시 충심으로 응하였으리라. (吳興太守眞好古, 購買斷缺揮縑緗. 龜趺入座螭隱壁, 空齋畫靜聞登登. 奇蹤散出走吳越, 勝事傳說多友朋. 書來乞詩要自寫, 爲把栗尾書溪藤. 後來視今猶視昔, 過眼百世如風燈. 他年劉郎臨賀監, 還道同時須服膺.)” : 劉禹錫은 <낙중사 북쪽 누각에서 하지장이 초서로 쓴 시를 보다(洛中寺北樓見賀監草書題詩)>라는 시에서 하지장 초서의 조예에 탄복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소식이 당대 서예가에 대해 견해를 밝힌 시 중 <유씨 집안 두 생질이 필적을 구하는 것에 수답하다. 두 수(酬柳氏二外甥求筆迹二首)> 중 둘째 수에서는 짧은 한 편의 시를 통해 자신의 서론을 전반적으로 제시하였다.

一紙行書兩絕詩, 종이 한 장에 행서로 절구 두 수를 써주니,
 遂良鬚鬢已如絲. 저수량의 수염이 이미 실과 같이 늘어졌네.
 何當火急傳家法, 무엇 그리 화급하게 가법을 전하려고 하는가,
 欲見誠懸筆諫時. 유공권이 필법으로 간언했던 때를 보았으면 하네.²⁷⁾

이 시는 나이 적은 친척이 소식의 서예 작품을 구하는 것에 답하는 두 수의 小詩 중 둘째 수이다. 앞의 시에서는 주로 서예의 功力과 字外의 수양이 서예에 미치는 작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작가는 높고 깊은 학식과 수양을 갖추고 있어야만 비로소 서예에 비범한 정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²⁸⁾ 위에서 인용된 둘째 시에서는 書品과 人品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당나라 때의 서예가 柳公權의 字가 誠懸이며, 筆諫이란 《新唐書·柳公權傳》에 나오는 말로, 필법으로 왕에게 간언을 한다는 뜻이다.²⁹⁾ 소식은 유씨 성을 지닌 두 명의 후배가 柳公權體를 학습하는 동시

27) 《蘇軾詩集》 卷11, <酬柳氏二外甥求筆迹二首> 중 둘째, 542쪽.

28) 앞의 첫째 수는 다음과 같다. “닿은 몽당붓이 산을 이루어도 진기할 것 없고, 책을 만 권은 읽어야 비로소 신명과 통한다네. 그대 집안에 예로부터 원화각이란 서체가 전해지니, 집답을 싫다 하여 다시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게나.(退筆成山未足珍, 讀書萬卷始通神. 君家自有元和脚, 莫厭家雞更問人.)” ‘元和脚’은 새로운 서체 혹은 서사 방법이란 뜻으로, 이는 劉禹錫과 柳宗元이 서로 창화한 시중에 유우석이 <유종원이 집답[집안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서법]이란 시를 보낸 것에 수답하다(酬柳柳州家雞之贈)>라는 시의 “유씨 집안에 새로운 모양의 원화각이란 서체를 보고, 모두들 생강 싹처럼 두 손 공손하게 생도가 되려 하네.(柳家新樣元和脚, 且盡姜芽斂手徒.)”에서 나온 말이다.

29) 《新唐書》 卷163, 列傳 第88 <柳公權傳>에 “황제[穆宗]가 유공권에게 용필에 대해 묻자 유공권이 대답하였다. ‘마음이 바르면 붓도 바르고, 붓이 바르면 이에 법으로 삼을 만합니다.’ 당시에 황제가 황망하고 방종하였기 때문에 유공권이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황제는 얼굴빛을 고치며 그가 필법으로 간하였음을 깨우쳤다.(帝問公權用筆法, 對曰心正則筆正, 筆正乃可法矣. 時帝荒縱, 故

에, 감히 직간을 하였던 유공권의 고상한 인품을 학습할 것을 희망하였다.

당대 서예가 회소에 대한 소식의 견해는 <회소의 초서첩에 제하다(題懷素草帖)>에서도 드러나는데,³⁰⁾ 이러한 견해는 회소와 장옥의 초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한 <왕희지 서첩에 제하다(題王逸少帖)>라는 시 전반부에서 이미 그 일단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소식의 제발 중 안진경에 관한 작품은 3편이나 되지만, 회소 작품에 대한 제발은 한 편도 없다는 것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소식은 당대 서예가 중에서 안진경을 최고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유공권을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 있으며,³¹⁾ 회소와 장옥의 초서를 최고 중의 하나로 쳤던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창적인 서예관을 지니고 있었다.

3. 宋代 서예에 관하여

소식은 자신이 생존하였던 송대의 여러 서예가를 비교적 많이 거론하였다. 소식의 題跋에서는 송초의 사대 서예가라고 할 수 있는 蔡襄과 黃庭堅, 심지어 歐陽脩와 王安石의 서예에 대한 견해도 피력된 바가 있어, 이들의 서예에 대한 견해는 비교적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서예시에서는

公權及之。帝改容，悟其以筆諫也。”고 한다(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上海古籍出版社, 2007, 3.0版 참조).

30) 이 시는 다음과 같다. “사람마다 술을 보내니 일찍이 술을 사지 않고도, 종일 토록 소나무 사이에 술통 하나 걸어두었네. 초서 대가란 미친 듯 마셔야 이를 수 있는 게 아닐진데, 진정으로 감히 취승도를 그려낼 수 있는가(人人送酒不曾沽，終日松間掛一壺。草聖無成狂飲發，真堪畫作醉僧圖.)” 장옥과 회소가 술 취한 후에 광초를 써내려갔다는 것에 대해 소식이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었음은 장옥에 대한 題跋 <書張長史草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31) 이에 대한 논지는 題跋 <評楊氏所藏歐蔡書>에서 “안진경과 유공권이 죽은 후로 필법이 쇠미하여 끊어졌네. …… 유독 양옹식만 필적이 웅결하여 왕희지 왕헌지 이왕과 안진경 유공권의 여업을 잇고 있네.(自顏柳氏沒，筆法衰絕，……獨楊公擬式，筆跡雄傑，有二王顏柳之餘.)”라고 왕희지 왕헌지의 이왕과 당대의 안진경과 유공권 두 사람만을 열거한 평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李福順 編著, 《蘇軾與書畫文獻集》(榮寶齋出版社, 2008.6, 北京), 33쪽.

채양과 황정견에 대한 평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의 서예시에서 거론된 송대 서예가로는 李建中(<金門寺中見李西臺與二錢唱和四絕句戲用其韻跋之> 其三), 林逋(<書林逋詩後>), 石蒼舒(<石蒼舒醉墨堂>), 米芾(<次韻米芾二王書跋尾二首>), 秦觀(<次韻秦觀秀才見贈秦與孫莘老李公擇甚熟將入京應舉>), 柳瑾(<觀子玉郎中草聖>), 李全(<是日偶至野人汪氏之居, 有神降於其室, 自稱天人. 李全字德通, 善篆字, 用筆奇妙而字不可識, 云天篆也. 與予言有所會者復作一篇, 仍用前韻>), 僧了性和 周越(<六觀堂老人草書詩>) 등이 있다.

송초 사대 서예가 중의 한 명인 미불의 글씨에 대해서는 <미불이 지은 이왕의 글씨 발미시에 차운하다. 두 수(次韻米芾二王書跋尾二首)> 중 둘째 수에 조금 피력되어 있다.

元章作書日千紙, 平生自苦誰與美. 畫地爲餅未必似, 要令癡兒出饑水. 錦囊玉軸來無趾, 粲然奪眞疑聖智. 忍饑看書淚如洗, 至今魯公餘乞米.	미불이 글씨를 쓰면 하루에 천 장을 쓰는데, 평생토록 홀로 각고하여 누구와 아름다움 다투나. 땅에다 떡을 그리면 반드시 비슷하지 않더라도, 분별없는 아이로 하여금 군침을 흘리게 한다네. 비단 주머니 옥 두루마리를 끊임없이 가져오고, 찬연하게 진본을 탈취하니 최상의 지혜인 듯. 굶주림 참으며 글을 보니 눈물이 씻은 듯 흐르지만, 지금도 안진경의 걸미첩은 그대로 남아 있네. ³²⁾
--	--

자가 元章이며 호는 襄陽漫仕 또는 海岳外史라고 하였던, 송초의 사대 서예가 중의 하나인 米芾(1051~1107)은 많은 서화를 수장하였으며 서화 감상에 뛰어났었다. 미불이 지은 <이왕서발미(二王書跋尾)>라는 시는 이미 망실되었으나, 소식이 지은 이 화답시만은 남아 있다. 먼저 소식은 서예 학습에 있어서 미불의 노력만은 인정하고 있다. 소식과 미불은 서화 감상과 애호에 있어서는 서로 같은 기호를 지녀 매번 유명한 필적을 얻으면

32) 《蘇軾詩集》 卷29, <次韻米芾二王書跋尾二首> 중 둘째, 1536쪽.

서로를 불러 감상하고 절차탁마하면서 고인 필적의 오묘함을 깊이 추구하였다. 그러나 미불은 서화 수집벽이 있어 타인의 서화 명품을 교묘하게 취해가거나, 죽음으로 위협하기까지 하는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명첩을 훔쳐간 일화로 유명하였는데,³³⁾ 소식은 이 시에서 미불의 이러한 습성과 도벽을 은근히 꾸짖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구해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왕희지 왕헌지 두 왕씨의 이름난 필적을 직접 봄으로써 서예가로서의 안목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소식과 동시대인으로 行草와 隸書에 뛰어나 사람들이 ‘草聖三昧’라고도 칭하였고, 각고의 노력으로 쓰다버린 붓이 산을 이룰 정도로 많았다고 하는 石蒼舒가 堂을 지어 堂號를 醉墨堂이라 하면서 소식에게 시를 지어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소식은 칠언고시 한 수를 지어주었는데, 이 시에서 소식은 익살 속에 엄숙함을 덧붙이고 겸손함 속에 자부를 함께 담아, 서예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자신과 석창서 서예에 대한 평가까지 하고 있다.

人生識字憂患始,	인생은 글자를 알면서 우환이 시작되니,
姓名粗記可以休.	이름 글자나 대충 적으면 충분하다 하겠네.
何用草書誇神速,	무엇 때문에 초서를 빨리 쓴다고 자랑하나,
開卷蠶悅令人愁.	글 펼치면 모호하여 사람을 근심하게 만드는데,
我嘗好之每自笑,	나도 일찍이 글씨를 좋아하여 늘 스스로 웃나니,
君有此病何年瘳.	그대가 지닌 이 병은 어느 해나 고쳐지려나.
自言其中有至樂,	그 속에 지극한 즐거움 있다고 스스로 말하니,
適意無異逍遙遊.	뜻대로 하는 것은 소요유와 다를 것 없다네.
近者作堂名醉墨,	최근에 당을 지어 취묵당이라 이름 하였으니,

33) 이에 관해서는 <韻語陽秋> 卷14(《歷代詩話》, 何文煥 輯(上·下), 中華書局, 2004.9, 第2版, 599쪽)에 실린 “米元章書畫奇絕, 從人借古本自臨搨, 臨竟, 併與臨本真本還其家, 令自擇其一, 而其家不能辨也. 以此得人古書畫甚多. 東坡屢有詩譏之. 二王書跋尾則云, 錦囊玉軸來無趾, 粲然奪眞擬聖智. 又云, 巧偷豪奪古來有, 一笑誰似癡虎頭. 山谷亦有戲贈云, 滄江靜夜虹貫月, 定是米家書畫船. 余謂人之嗜好耽著, 乃至於此. 元章嘗以九物換劉季孫子敬帖, 不獲, 其意歎然. 張芸叟作詩云, 請君出奇帖, 與此九物并. 今日投汴水, 明日到滄溟. 又有, 破紙博珠玉之句. 此詩亦可以警膏肓於書畫者.”라는 조목을 참고할 수 있다.

如飲美酒銷百憂。	좋은 술 마시며 온갖 근심 삭이는 것과 같네.
乃知柳子語不妄，	유중원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제야 알겠으니,
病嗜土炭如珍羞。	인이 박히면 흙과 석탄도 진수성찬처럼 먹으려 한다네.
君於此藝亦云至，	그대는 초서에 있어 지극한 경지에 도달하였으니,
堆牆敗筆如山丘。	쌓아 버린 붓 쌓아둔 것이 산만큼이나 되었네.
興來一揮百紙盡，	흥이 일어 일필휘지하면 백 장의 종이도 모자라,
駿馬倏忽踏九州。	준마가 빠르게 질주하여 천하를 누비는 듯하네.
我書意造本無法，	내 글씨는 내 뜻에서 나와 본래 법이 없었으니,
點畫信手煩推求。	점획은 손가는 대로 쓰고 추구하기를 번거로워 하네.
胡爲議論獨見假，	무엇 때문에 나의 의론이 유독 그대에게 칭찬받아,
隻字片紙皆藏收。	글자 하나 종이 한 장도 모두 거두어 소장하는지.
不減鍾張君自足，	중요와 장지에 모자라지 않으니 그대 스스로 만족하고,
下方羅趙我亦優。	아래로는 나휘와 조습에 비교하여 나 또한 넉넉하네.
不須臨池更苦學，	못가에서 더욱 각고의 학습을 할 필요가 없을지니,
完取絹素充衾裯。	흰 비단을 모두 가져와 이불을 만드는 게 낫겠네. ³⁴⁾

이 시는 仁宗 熙寧 2年(1069年) 소식이 34세 때 지은 것으로, 이 시를 지을 때는 작가가 중년을 맞았을 때였다. 소식은 석창서 초서의 신묘함을 칭찬하면서 중간 중간 해학적인 어조로 자신의 인생관과 정치관 및 서예에 대한 이론을 융합시키고 있다. 당나라 사람들은 글씨에서 法을 숭상하였고, 송나라 사람들은 글씨에서 意를 중시하였는데, 소식이 송대의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하나였다. 소식은 서예란 서예가의 지식과 才華의 외재화라고 인식하였다. 이 때문에 自我를 강조하였고, ‘意造(특정한 필법에 구애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글씨를 쓰는 것)’를 중시하였으며, ‘作書無法(글씨를 씌에 일정한 법이 없음)’과 ‘信手點畫(손가는 대로 점획을 쓸 것)’을 강조하였다. 못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한 점 한 획을 지나치게 따지는 것을 반대하였다. 소식은 서예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믿었고, 서예에 대한 자신의 조예가 세상에 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으니, 이것이 그가 대서예가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었다.³⁵⁾

34) 《蘇軾詩集》 卷6, <石蒼舒醉墨堂>, 235쪽.

아마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았던 六觀堂老人의 초서를 보고 읊은 <육관당노인의 초서시(六觀堂老人草書詩)>에서, 소식은 그 초서의 장점을 정확하게 파악해내었다. 육관당노인이 僧了性이었기에, 이 시의 전반부에서는 소식이 체득한 불교 철학의 교리를 담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육관당노인의 초서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여기서는 서예에 대해 읊고 있는 후반부만을 인용해본다.

.....
草書非學聊自悟, 落筆已喚周越奴。 蒼鼠奮鬚飲松腴, 剡藤玉板開雪膚。 遊龍天飛萬人呼, 莫作羞澁羊氏姝。	초서를 배운 적도 없이 에오라지 스스로 즐기니, 붓을 대면 이미 주월의 노비들을 부리는 듯하네. 쥐 수염으로 만든 서수필을 송연묵 먹물에 적시고, 섬등지와 옥판지가 눈처럼 하얗게 펼쳐져 있네. 숫구치는 용이 하늘을 날며 만인을 호령하는 듯한데, 양씨 누이에게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없겠네. ³⁶⁾

소식의 시에는 “육관이란 말은 《금강경》에 나오는 꿈, 환상 등 여섯 가지 사물에서 취했다. 노인은 스님 료성으로 의술에 정통하면서 초서를 잘 썼다. 글씨를 쓰면 심원한 운치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귀한 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시를 지었다.(六觀, 取金剛經夢幻等六物也. 老人, 僧了性, 精於醫而善草書, 下筆有遠韻, 而人莫知貴, 故作此詩.)”라는 설명이 뒷부분에 덧붙여져 있는데, 이 시에서는 서예에 있어서 자연스러움을 귀하게 여기고 인위적인 조탁을 반대했던 소식의 서예관이 드러나 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한 노승의 뛰어난 초서를 인정해줄 수 있는 소식의 안목을 간파해낼 수 있다. 周越은 소식이 생존했던 당시에는 초서로 이름이 알려져 있던 宋代의 서예가로, 그의 글씨는 五代에서 宋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였다. 宋四大家인 蔡襄과 黃庭堅과 米芾은 처음에 모두 周越의 글씨를 배워 그에게 영향을 받았으므로, 대체로 그의 서예를 존

35) 楊克炎 選注, 《書法詠論》(遼寧美術出版社, 1993, 沈陽), 84-86쪽.

36) 《蘇軾詩集》 卷34, <六觀堂老人草書詩>, 1795쪽.

중하였다.³⁷⁾ 그런데 주월의 서예를 어느 정도 인정하였던 소식은 초서를 배운 적도 없는 육관당노인 僧 了性の 초서를 오히려 주월보다 더 높이 평가하여, 육관당노인의 초서가 이러한 주월의 초서를 능가할 정도로 뛰어나다고 추켜세웠다.³⁸⁾ 지금은 그의 진적이 남아 있지 않아 그 전모를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누구도 육관당노인의 초서를 알아주지 않았으나 소식은 인위적 조작이 없이 자연스러운 그 초서의 가치를 간파해내고 이를 시로 지어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다.

VI. 結論

蘇軾은 거의 모든 문학 장르에 뛰어난 업적을 남겨 중국 역대의 가장 빼어난 문인 중의 한 명이자,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로 송대에 가장 특이하고 운치 있는 서체를 구현한 서예가로도 유명하였다. 시와 서예에 모두 뛰어났던 소식은 자신의 시에서 중국 역대 서예가와 서예작품에 대한

37) 李敖·陳兆基·王裕民,《周越墨跡研究—你不知道的故宮博物院》(桂冠圖書, 1997, 臺北), 31-34쪽: “以宋四家爲例。蔡襄是先学了周越的字, 再学张芝、钟繇、王羲之、李阳冰、颜真卿、张旭、懷素、智永的。卞永誉<式古堂书画汇考>卷二所謂‘本朝书米蔡为冠, 余子莫及, 君谟始学周越书, 其变體出於颜平原。’…… 黄庭坚是先学了周越, ‘以周越为师’, 自述說‘余学草书三十餘年, 初以周越为师, 故二十年抖擞俗氣不脱。’…… 米芾, 也是周越的追随者。张丑在<真蹟日錄><元章四帖>条下记米芾自述, ‘余年十岁写碑刻, 学周越、苏子美札, 自作一家。’…… 宋四家人人都無所逃於周越天地之間。周越是五代书家到‘宋四家’之間的關鍵銜接者。”

38) 《韻語陽秋》卷14(《歷代詩話》, 何文煥 輯(上·下), 中華書局, 2004.9, 第2版, 600쪽)에는 이 시의 육관당노인과 張旭 懷素의 초서를 비교한 “東坡評張顛懷素草書云, 張顛醉素兩禿翁, 追逐世好稱書工。有如市娼抹青紅。卑之甚矣。至評六觀老人草書則云, 心如死灰實不枯, 逢場作戲三昧俱。蒼鼠奮髯飲松腴, 剡籐玉腋開雪膚。夏雲飛天萬人呼, 莫作羞癡楊氏姝。則知坡之所喜者, 貴於自然, 雕鐫而成者, 非所貴也。然張顛自言, 見公主擔夫爭道, 而得筆法, 觀公孫大娘舞劍器, 而得神俊。僧懷素自言, 吾觀夏雲多奇峯, 輒師之。謂夏雲因風變化無常勢, 草書亦當爾。則二人筆法固亦出於自然, 而坡去取之異如此, 何耶。”라는 조목이 있는데, 《蘇軾詩集》과는 시구가 상이한 곳이 더러 있지만 참고할 만하다.

견해를 상당히 많이 언급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소식의 서예관이 적절히 잘 용해되어 있는 이러한 시를 書藝詩로 분류하고, 현전하는 소식의 시 중에서 47題 58首를 書藝詩로 선별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소식은 자신의 서예시에서 자신이 생존하였던 송대의 서예가와 서예 작품을 비교적 많이 언급하였으나, 唐 이전의 先秦 漢魏와 唐代의 역대 서예가와 서예 작품도 자주 거론하였다. 언급된 횟수가 조대별로 비교적 균등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唐 이전과 唐代, 그리고 宋代의 서예 등 세 절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아하고 초탈하며 古意가 풍부한 漢代와 晉代의 고상한 운치를 숭상했던 소식은 진한대와 위진대를 통틀어 서예가로는 王羲之를, 서예작품으로는 <蘭亭集序>를 최고의 전범으로 두었다. 唐代 서예가 중에서는 顏眞卿을 최고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柳公權을 염두에 두었으며, 懷素와 張旭의 초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하여, 唐代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창적인 서예관을 피력하였다. 소식은 자신이 생존하였던 송대의 여러 서예가를 비교적 많이 거론하였는데, 서예시에서는 비록 당시에 유명했던 蔡襄과 黃庭堅에 대한 견해는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당시 사람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六觀堂老人의 초서에 담겨 있는 장점인 심원한 운치와 자연스러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내었다.

당나라 사람들은 글씨에서 法을 숭상하였고, 송나라 사람들은 글씨에서 意를 중시하였는데, 소식은 唐代와는 다른 자신만의 서예관을 피력하였다. 소식은 서예란 서예가의 지식과 才華의 외재화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自我를 강조하여 특정한 필법에 구애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글씨를 쓰는 것을 중시하였으며, 글씨를 씌에 일정한 법이 없이 손가는 대로 점획을 쓸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서예에 있어서 각고의 노력만을 중시하는 것과 인위적인 조탁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한 점 한 획을 지나치게 따지는 것을 반대하였고 자연스러움을 귀하게 여겼는데, 소식의 서예시에서는 이러한 소식의 서예관이 잘 드러나 있다. 소식 서예에 대한 후대의 평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연구를 병행하면 좋을 것이나, 본고의 지면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는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References>

1. Cai xianliang, "An introduction to the poems on Calligraphy of Song Dynasty's Four Calligrapher", *Chinese Calligraphy* No.8, 2004.8.
2. Cai xianliang, *A Study on the poems on Calligraphy on Song Dynasty*, Nanjing yishu xueyuan, Doctoral dissertation, 2007.5.
3. Cai xianliang, *A Study on the poems on Calligraphy on Tang Dynasty*, Nanjing yishu xueyuan, Master's thesis, 2004.4.
4. Chen si, *Shuyuan Jinghua*, A series of Sikuyishu, Shanghai guji chubanshe, 1991.8, Shanghai.
5. *Complete Library in Four Branches of Literature, the Electronic Version of Siku Quanshu* (Wenyuange Edition), Shanghai guji chubanshe, 2007, 3.0edition, Shanghai.
6. Fang ailong, "Detailed discussions of Du fu's poem 'Lichao bafenxiao-zhuang' and Comparison with Su shi's poems", *Journal of Zhejiang College of Broadcasting and Television*, No.5, Aug. 1995.
7. He wen-huan, *Lidai Shihua* (all 2vol), Chunghwa book co, 2004.9, 2edition, Beijing.
8. Li ao·Chen zhaoji·Wang yumin, *A Study on The Calligraphy of Zhou yue*, Guiguan Book Co., Ltd, Taiwan, Taipei.
9. Li fushun, *Sushi yu shuhua wenxianji*, Rongbaozhai chubanshe, 2008.6, Beijing.
10. Ling liping, *A Study on the poems on Calligraphy on Song Dynasty*, Zheji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5.
11. Liu zongmok etc, *A Complete Translation: Complete Poetry of Su*

- shi* I,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5.11.
12. Qiu zhao-ao, *Dushi xiangzhu* (all 3vol), Hanjing wenhua shiye youxian gongsi, Mingguo73[1984], Taiwan, Taipei.
 13. *Quansongshi: Complete poetry of the Song Dynasty*(all 72vol), PEKING UNIVERSITY PRESS, 1998, Beijing.
 14. Su shi, *Sudongpoquanji: The Collection of Su dongpo's Works* (all 2vol), Yang Jialuo eds, The World Book Co, 1964, Taipei.
 15. Su shi, *Sushishiji: Complete poetry of Su shi* (all 8vol), Kong Fanli eds, Zhongguo gudianwenxue jibencongshu, Chunghwa book co, 1989.3, 1edition, Beijing.
 16. Su shi, *Sushiwenji: Complete prose of Su shi* (all 6vol), Kong Fanli eds, Zhongguo gudianwenxue jibencongshu, Chunghwa book co, 1992.4, 3edition, Beijing.
 17. Su zhe, *Suzheji: The Collection of Su zhe's Works* (all 4vol), Chen Hongtian & Gao Xiufang eds, Zhongguo gudianwenxue jiben congshu, Chunghwa book co, 1990.8, 1edition, Beijing.
 18. Sun min, "Calligraphy Aesthetic View in the poetry of Sushi – Interpretation of Su shi's Three poems on Calligraphy", *Journal of Leshan Teachers College*, Vol.19, No.6, Jun. 2004.
 19. Tu youxiang, *Shangutiba : The Inscriptive Writings of Shangu*, Shanghai yuandong chubanshe, 1999.1, Shanghai.
 20. Wang yousheng, *Study on the history of Su shi's poetry(revised edition)*, Chunghwa book co, 2010.7, Beijing.
 21. Woo Jae-Ho, "A Study on The poetry that treats of Calligraphic of Huang Tingjian",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69, Chinese Literary Society of YEONGNAM, 2015.8.
 22. Woo Jae-Ho, "A Study on The poetry that treats of Calligraphic of Mei Yao-chen",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Vol.55, Chinese Literary Society of YEONGNAM, 2010.6.
23. Woo Jae-Ho, "A Study on The poetry that treats of Calligraphic of Tang Dynasty", *Korea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43, Th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ociety of Korea, 2008.12.
24. Woo Jae-Ho, "Translated and Annotated of Chinese Calligraphy poetry ever(5-8)", *The Translations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Yeungnam University, Vol.30-33, 2009.5-2010.11.
25. Yang keyan, *Shufayonglun*, Liaoningmeishuchubanshe, 1993, Shenyang.
26. Zhao Long-Tao, "Brief Study on Su Shi's Poems on Calligraphy Art", *Shuhua Yishu Xuekan* Vol.9, 2010.12.
27. Zhou benchun, "A Comparison of Du fu and Su shi's poetry that treats Calligraphy", *Journal of Huaiyin Normal University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 No.2, Jul. 1988.

<참고문헌>

1. 蔡顯良, <宋四家論書詩概說>, 《中國書法》 第8期, 2004.8.
2. 蔡顯良, 《宋代論書詩研究》, 南京藝術學院 博士學位論文, 2007.5.
3. 蔡顯良, 《唐代論書詩研究》, 南京藝術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4.
4. 陳思, 《書苑菁華》(四庫藝術叢書, 上海古籍出版社, 1991.8.
5.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上海古籍出版社, 2007, 3.0版.
6. 方愛龍, <杜甫李潮八分小篆歌論兼與蘇軾詩比較>, 浙江廣播電視高等專科學校學報, 第5期, 1995.
7. 何文煥 輯, 《歷代詩話》(上·下), 中華書局, 2004.9, 2版.
8. 李敖·陳兆基·王裕民, 《周越墨跡研究-你不知道的故宮博物院》, 桂冠圖書, 1997.6, 臺北.

9. 李福順 編著, 《蘇軾與書畫文獻集》, 榮寶齋出版社, 2008.6, 北京.
10. 凌麗萍, 《宋代論書詩研究》, 浙江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5.
11. 류종목 등, 《완역蘇軾詩集 I》,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11.
12. 仇兆鰲, 《杜詩詳註》(全3冊),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臺灣, 民國73年.
13. 《全宋詩》(全72冊), 北京大學出版社, 1998.
14. 蘇軾, 《蘇東坡全集》(上下2冊), 楊家駱編, 臺灣世界書局, 民國53年.
15. 蘇軾, 《蘇軾詩集》(全8冊), 中國古典文學基本叢書, 孔凡禮 點校, 北京中華書局, 1992.4 3版.
16. 蘇軾, 《蘇軾文集》(全6冊), 中國古典文學基本叢書, 孔凡禮 點校, 北京中華書局, 1989.3 1版.
17. 蘇軾, 《蘇軾集》(全4冊) 中國古典文學基本叢書, 陳宏天·高秀芳 點校, 北京中華書局, 1990.8, 1版.
18. 孫民, <蘇軾詩中的書道觀—解讀蘇軾三首論書詩>, 樂山師範學院學報, 19卷 6期, 2004.6.
19. 屠友祥 校注, 《山谷題跋校注》, 上海遠東出版社, 2011.8.
20. 王友勝, 《蘇詩研究史稿》(修訂版), 中華書局, 2010.7, 北京.
21. 禹在鎬, <黃庭堅의 書藝詩 研究>, 《中國語文學》 第69輯, 嶺南中國語文學會, 2015.8.
22. 禹在鎬, <梅堯臣 書藝詩 特徵>, 《中國語文學》 第55輯, 嶺南中國語文學會, 2010.6.
23. 禹在鎬, <唐代 書藝詩 試探>, 《中語中文學》 第43輯, 韓國中語中文學會, 2008.12.
24. 禹在鎬, <中國歷代 詠書詩 譯註(5-8): 宋代1-4>, 《中國語文學譯叢》 第30-33輯, 2009.5-2010.11.
25. 楊克炎 選注, 《書法咏論》, 遼寧美術出版社, 1993, 沈陽.
26. 趙龍濤, <蘇軾論書詩簡論>, 《書畫藝術學刊》 第9期, 2010.12.
27. 周本淳, <杜甫與蘇軾論書詩之比較>, 淮陰師專學報, 第2期, 1988.

<Abstract>

Among the poems of Su Shi who excelled in both poetry and calligraphy, 58 poems on 47 topics which had expressed views on previous calligraphers and calligraphy works were selected as poems on calligraphy, and Su Shi's aesthetic view of calligraphy was analyzed in this paper. Su Shi regarded Wang Xizhi as the exemplar of calligraphers and the *Preface of the Orchid Pavilion Poetry Anthology* as the exemplar of calligraphy works. Su Shi selected Yan Zhenqing and Liu Gongquan in the Tang Dynasty as the best calligrapher. In contrast, by undervaluing Huai Su and Zhang Xu considerably, Su Shi expressed his distinct view of calligraphy different from the contemporary general perception. Su Shi expressed his own aesthetic view of calligraphy different from that of the Tang Dynasty. Since he perceived calligraphy as the externalization of the knowledge and talent of a calligrapher, he placed emphasis on the self and put weight on handwriting of its own free will regardless of specific handwriting styles, and also placed emphasis on writing points and strokes freely without sticking to certain styles in handwriting. In calligraphy, he objected to valuing only grueling efforts and artificial elaboration, but instead, set a high value on naturalness.

Key Words : 蘇軾(Su shi), 書藝詩(Poems on Calligraphy), 書藝觀(Aesthetic View of Calligraphy), 書藝家(Calligrapher), 書體(Scripts), 書論(Theory of Calligraphy)